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Brief

2016. 10. 05

집필자

장세길_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정책브리프 2016년 10월 05일 vol.9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 개인 향유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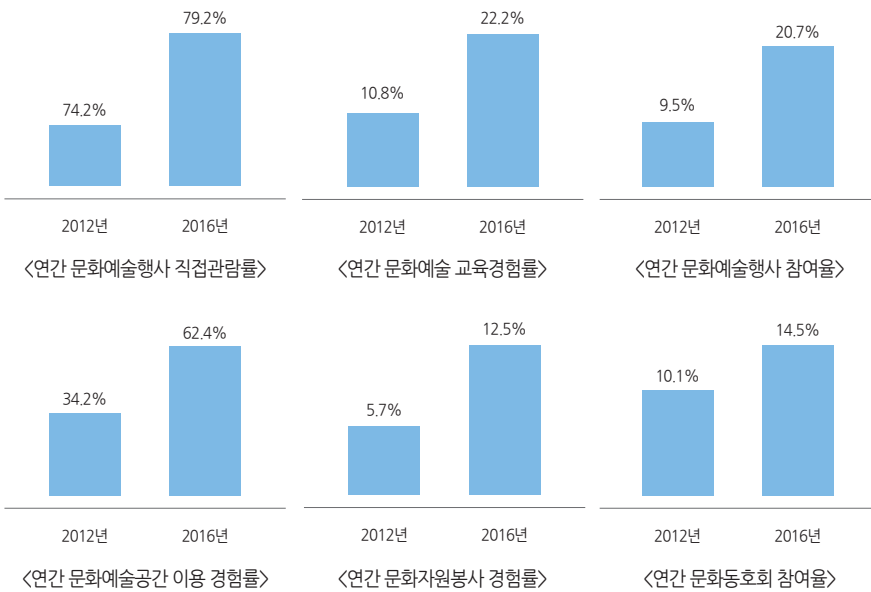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eonbuk
Institute

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 : 개인 향유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

- 조사대상 : 2016.07. 기준 14개 시·군 거주 도민 2,504명(시군 인구별 제곱근비례할당)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기준인 만15세 이상 적용
- 조사시기 : 2016.07.27 ~ 2016.08.05
- 조사내용 : 조사기준 지난 1년 동안의 문화예술의 단계별 향유(관람·교육·참여·활동) 내용

■ 주요 조사결과 ※ 2012년 조사결과는 2013년 1월에 조사된 2012년 1년 동안의 전북도민 문화향유 실태임



■ 함의와 제언

-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소극적 문화향유라고 할 수 있는 '관람'을 넘어, '교육·참여'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활동'의 단계로 이동. 활동방식도 개인적 향유 중심에서 공동체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
- 전북도민의 문화향유 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문화향유 증진정책이 필요. 단순 관람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직접 참여(전시·발표), 공동체 활동(문화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동네문화축제)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병행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문화향유 정책방향은 다양성. 문화소외층이 고급예술을 향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에서 고급예술부터 대중상업예술, 문학부터 영화까지 '문화향유의 폭넓음'에 목표를 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정확한 통계와 시계열적 분석에 의한 정책수립을 위해 2년 단위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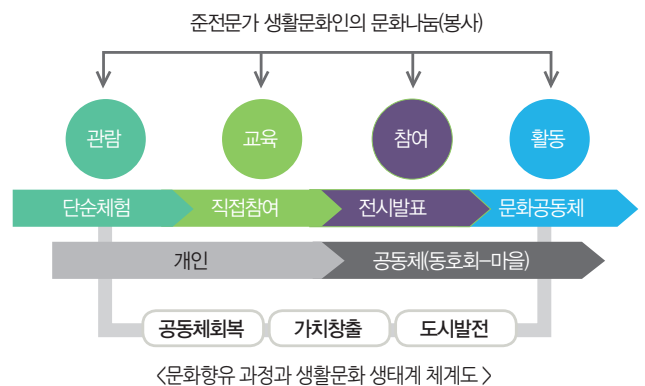
1. 조사목적과 개요

■ 조사목적

- 「문화기본법」 시행 이후 문화향유는 국가 책무가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향유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향유정책을 수립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1988년부터 2년 마다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표본이 적어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이 조사는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역 차원에서 구축함으로써 문화향유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내용

- 문화향유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람-교육-참여-활동’의 단계를 거치면서 활동범위가 개인에서 공동체·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음. 이 조사는 이러한 과정에 맞춰 조사내용을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준용함
- 조사항목 :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람 및 참여행태 파악,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경험과 실태 파악, 문화예술의 활동공간 이용행태 파악, 문화자원봉사 및 문화동호회 등 문화활동에 대한 실태와 행태 분석 등



■ 조사방법

- 조사대상 : 2016년 7월 기준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 2,504명(시군 인구별 제공근비례할당)으로, 나이는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기준인 만15세 이상을 적용함
- 조사시기 : 2016년 7월 27일 ~ 2016년 8월 5일(10일 간)
- 자료수집 : 교육 받은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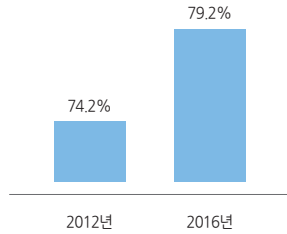
- 전라북도(기획관실)는 2013년 1월에 2012년 1년 동안(2012.1.1~2012.12.31)의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당시 조사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와 더불어 시계열적 추세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¹⁾

1) 당시 조사는 시군별 인구 밀집지역(마트, 터미널, 시장 등)에서 조사가 이뤄진 반면, 이 조사는 생활공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두 조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다만 4년이 지난 현재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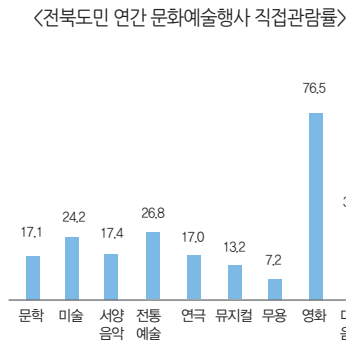
2. 주요 조사결과

(1) 문화예술행사 관람

- 문화향유의 대표지표가 1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²⁾



- 2016년 전북도민의 연간 문화예술 행사 직접관람률은 79.2%로 조사됨. 2012년 1년 동안의 경험을 조사한 2013년 1월 조사에서는 74.2%로 조사돼 약 3년 사이에 5%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직접 관람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보임. 남자보다는 여자의 관람률이 높음



-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횟수는 평균 1.81회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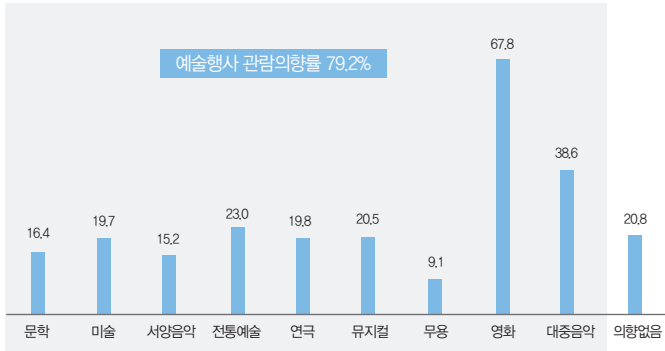
- 영화를 가장 많이 관람 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적인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임. 전북의 경우 작은영화관이 모든 읍내에 조성됨으로써 군부의 영화관람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통예술의 관람률이 26.8%로 대중음악(30.7%)에 이어 3위를 차지함. 예향(藝鄕) 전라북도의 중요한 문화예술 관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학력/가구소득별 장르의 관람실태를 살펴보면,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관람 장르가 다양하지 않음. 영화가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나, 학력/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문학, 미술 등 다른 장르에도 어느 정도 관람률을 보인 반면, 학력/가구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전통예술을 제외하고 관람률이 유사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장르별 만족도는 영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7점 척도, 5.6점). 전통예술에 대한 관람률 및 관람횟수에 이어 전통예술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는데, 전라북도가 전통예술의 본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임

-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장르는 대중음악(5.49점)이며, 3위는 뮤지컬(5.28점)임. 전통예술 직접관람 만족도는 5.25점으로 4위이나, 뮤지컬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서양음악과 연극이 5.06점, 무용이 4.95점, 미술이 4.86점, 문학이 4.69점으로 나타남

-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9.2%임. 주로 영화, 대중음악을 관람할 의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장르별 직접관람률 및 관람횟수와 동일한 패턴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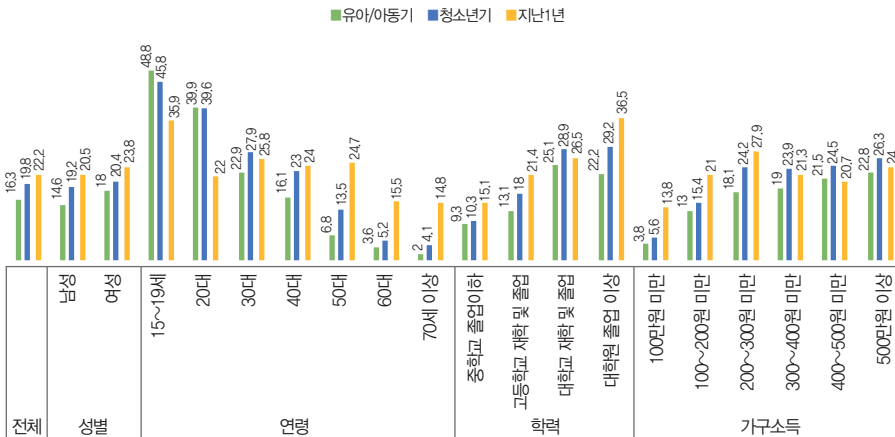
2) 문화예술행사란 “문학행사(시화전, 도서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서예·건축·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영화(TV 제외),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를 말하며, ‘직접 관람’이란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는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관람한 것을 말함



<전북도민의 향후 1년 이내 분야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의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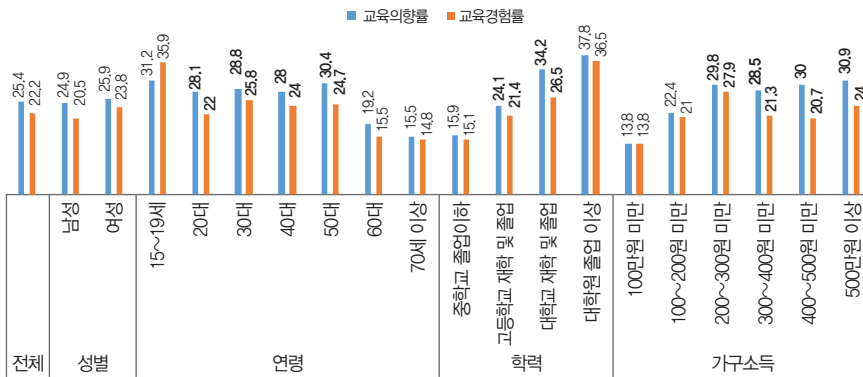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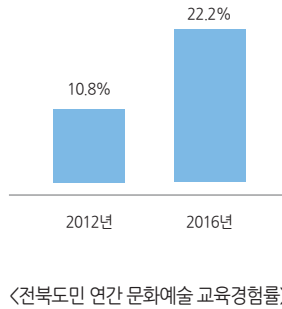
(2) 문화예술 교육

- 1년 동안 전북도민이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22.2%로 조사됨. 2013년 조사된 2012년 한해 동안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0.8%보다 11.4%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했는데, 첫째, 유아 및 아동기 시절에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16.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둘째, 청소년기에 학교교육 외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하여는 19.8%가 있었다고 응답함
 - 셋째, 최근 1년 이내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2.2%가 있다고 응답함.
- 어릴 적 교육경험률과 달리 20대보다 30~50대의 경험률이 높게 나왔고, 60대 15.5%, 70대 이상 14.8%가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전북도민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유아/아동기, 청소년기, 지난 1년>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남.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장르는 서양음악(5.40)이며, 영화(5.30), 전통예술(5.27), 대중가요(5.21), 뮤지컬(5.18) 등이 뒤를 이음. 역사문화유산(4.87), 무용(4.74)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교육의향율은 25.4%로 조사됨. 지난 1년 간 문화예술 교육 경험률보다 3.2%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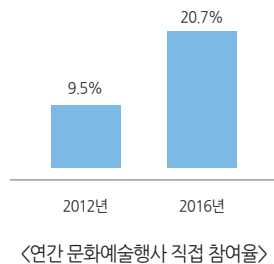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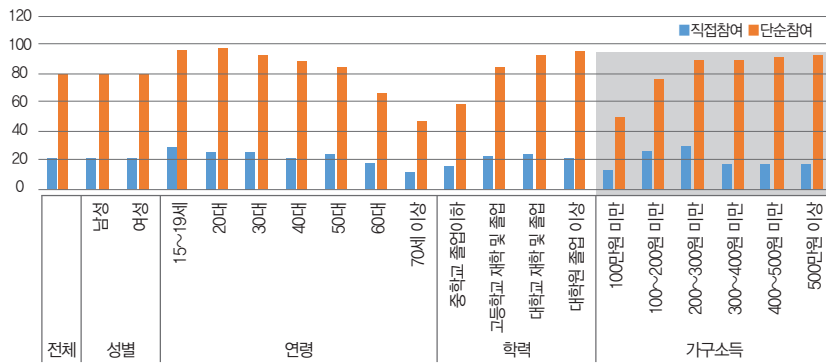
<전북도민의 향후 1년 이내 교육의향률과 연간 문화예술 교육경험률의 비교(%)>

- 연령대로는 1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왔음. 10대의 경우 실제 교육경험률도 높기 때문에 교육의향률도 높을 수가 있으나, 50대에서 높게 나왔다는 것은 문화향유정책을 고려하는데 주목해야할 점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활동 현장에서 가장 활발한 계층이 50대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함
-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에 대한 의향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월평균 가구소득 200~300만원인 경우가 300~400만원인 경우보다 교육의향률이 1.3% 높게 조사됨.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가구소득에 의해 교육욕구가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보여줌

(3) 문화예술행사 참여

- 전북도민이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률은 전체의 20.7%로 조사됨. 2013년 조사된 2012년 한해 동안의 문화예술행사 직접참여율은 9.5%였음
-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율은 40대보다는 50대에서 직접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이 오히려 가구소득 100~300만원 구간보다 낮게 조사됨
- 즉 일반적 특성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직접 관람률과 달리, 직접 참여율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그만큼 적극적인 문화향유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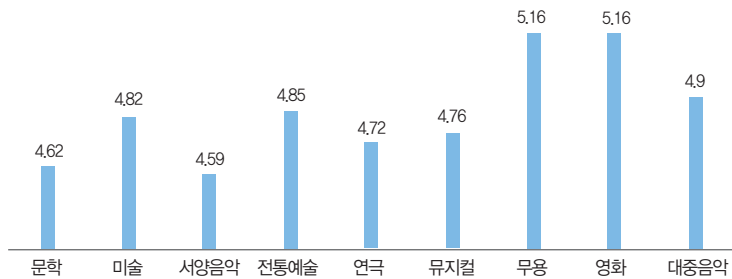




<전북도민의 연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과 직접 참여율의 비교>

○ 문화예술행사 직접 참여에 대한 장르별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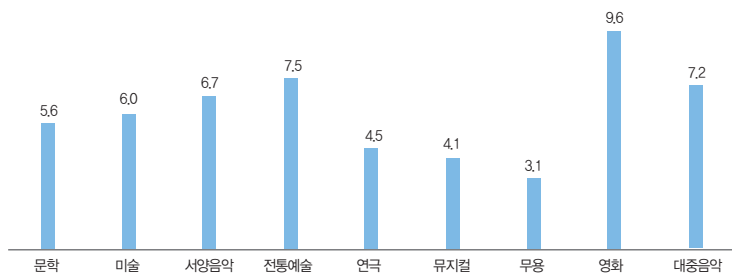
-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는 영화와 무용임(5.16점). 무용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지만, 참여한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은 크다는 것을 말해줌.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장르는 대중음악(4.9점)이며, 이어 전통예술(4.85점), 미술(4.82점)이 뒤를 이음



<문화예술행사 참여활동 분야별 만족도 (7점 척도)>

○ 향후 1년 이내에 문화예술행사에 직접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3.6%임. 직접 참여한 비율보다 약 3%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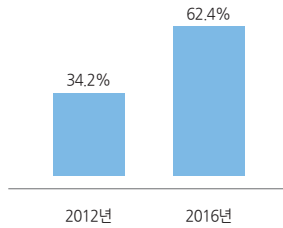
-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의향이 가장 높은 장르는 영화(9.6%)이며, 전통예술(7.5%), 대중음악(7.2%), 서양음악(6.7%)이 뒤를 이음. 가장 낮은 장르는 무용으로 3.1%임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별 직접 참여의향률 (%)>

(4) 문화예술공간 이용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로 조사됨. 2013년 조사된 2012년 1년 동안의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34.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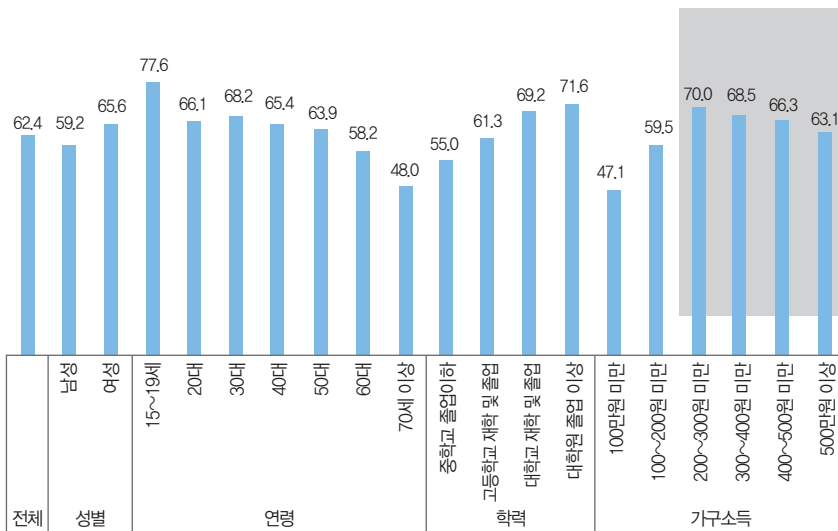


<전북도민 연간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률>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대부분 노인층)에서 이용률이 낮게 조사됨.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남녀 간의 이용률 격차 또한 다른 조사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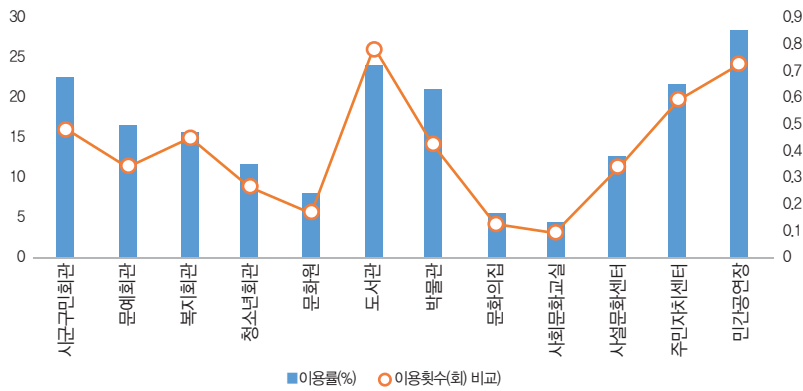


<전북도민의 연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에 대한 일반적 특성별 비교%>

○ 공간별 이용률은 민간공연장이 가장 높으나 이용횟수는 도서관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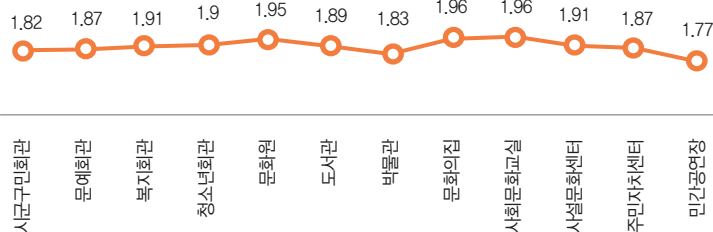
- 생활권별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다른 공간보다 공간수가 많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읍·면·동별로 조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과 유사함
- 문화원은 시·군별 1개소, 문화의집도 평균적으로 시·군별 1개소(전주는 5개소)가 조성되어 있어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과 이용횟수가 적은 것으로 보임³⁾
- 이용횟수와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북도민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은 도서관으로 보임. 이에 반해 시·군민회관, 문예회관, 박물관 등은 이용경험은 있으나 이용횟수가 적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3) 문화의집 경우 민간위탁 시설과 지자체 직영 시설의 구분이 필요함. 대부분 지역에서 문화의집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등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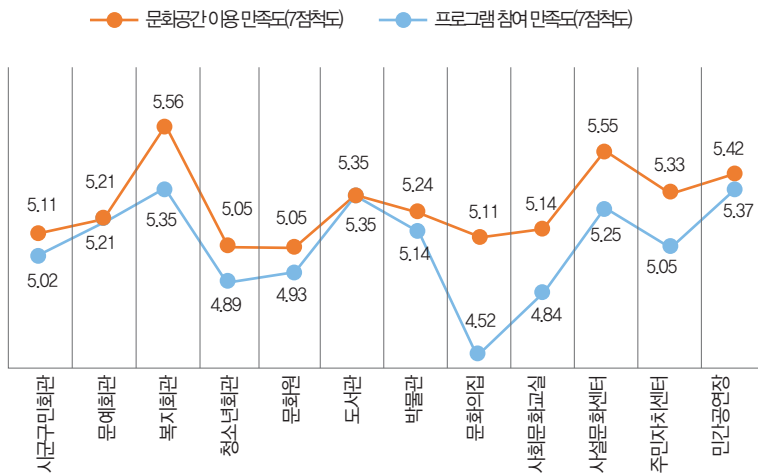
<문화예술공간의 이용률(%)과 이용횟수(회) 비교>

- 공간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민간공연장(5.37점)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복지회관(5.35점)과 도서관(5.33점)이 뒤를 이음
- 문화예술공간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 이용률을 의미함. 연간 프로그램 이용횟수가 가장 많은 시설은 문화의집과 사회문화교실(1.96회)로 조사됨



<연간 문화예술공간 프로그램 이용횟수>

- 문화예술공간 이용 만족도보다 문화예술공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문화공간의 소극적 이용 그룹보다 적극적 이용 그룹에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문화의집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 이용만족도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나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만족한다는 것으로 보임. 문화의집에 대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뜻이기도 함



<연간 문화예술공간 이용 만족도와 문화예술공간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비교>

- 향후 문화예술공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61.5%로 나타남. 남자(57.8%)보다는 여자(65.1%)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대, 50대(69.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5) 문화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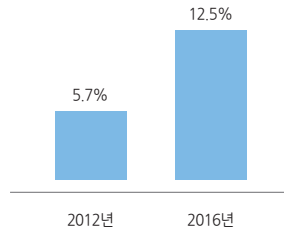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의 문화자원봉사 경험률은 12.5%로 조사됨. 2013년 조사된 2012년 1년 동안의 문화자원봉사 경험률은 5.7%였음

-문화자원봉사 활동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남(28.3%). 문화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전체 연간 참여 횟수는 40대가 3.36회로 가장 높게 조사됨. 또한 남성이 경험률이 높으나, 참여횟수는 여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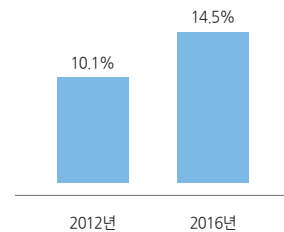
-10대, 20대는 참여경험률은 높지만, 참여횟수는 40대~50대보다 낮게 나타남.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에서 참여 경험률은 낮지만 참여횟수는 40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남. 즉 참여한 노인들의 문화자원봉사 반복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동호회에 참여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14.5%인 것으로 조사됨. 2013년 조사에서는 2012년 1년 동안의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경험률이 10.1%로 나타남

-일반적인 계층별 상관성이 높지 않음. 학력이 높을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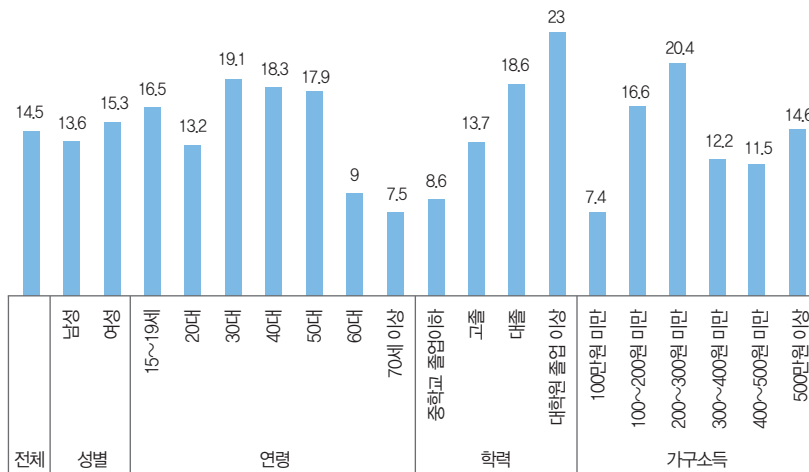
<전북도민 연간 문화자원봉사 경험률>



<전북도민 연간 문화동호회 참여율>

참여율은 올라가나, 중간 소득계층에서 오히려 참여율이 낮아짐.

-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율이 높고, 30~50대의 참여율이 높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전북도민 연간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경험률(%)>

3.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사회복지와 다른 문화향유 실태, 별도의 정책대상 설정이 필요

-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경제적 삶의 지표가 비례하면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문화향유 역시 경향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향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나, 문화향유 내용별로 차별화됨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아지나,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문화동호회 참여율, 문화자원봉사율 등은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음. 즉, 소극적 문화향유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지만, 적극적 문화향유와 공동체적 활동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으나 그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향유 정책대상은 사회복지 정책대상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됨. 문화소외 계층, 특히 적극적 문화향유 취약계층은 사회복지 대상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문화향유와 관련한 정책대상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⁴⁾

□ 전북도민 문화향유, 개인 향유에서 공동체 활동으로 전환 중

- 2013년 조사(2012년 문화향유실태)와 이번 조사를 비교했을 때,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직접 관람률의 개선보다 직접 참여율, 문화예술교육율, 문화활동(문화자원봉사, 문화동호회) 참여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4) 예를들어, 직장인이 대표적인 문화향유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음

- 문화향유 단계에서 소극적 문화향유라고 할 수 있는 ‘관람’을 넘어, ‘교육-참여’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점진적으로 ‘활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됨. 활동의 방식도 개인 향유 중심에서 공동체(지역사회) 활동이 강조되는 추세임. 즉 양적 성과와 더불어 질적 발전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전북도민의 문화향유 단계에 맞는 맞춤형 문화향유 증진정책이 필요함. 단순 관람률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직접 참여(전시·발표), 공동체적 활동(문화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동네문화축제 등)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병행해야 함

□ 정책의 방향 전환: 고급예술 향유에서 다양한 문화향유로

-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 중 문화향유의 다양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향유하는 예술장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함⁵⁾
- ‘문화민주주의’ 전략에 입각해 수립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문화향유 정책방향은 다양성임. 문화소외층이 고급예술을 향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에서 고급예술부터 대중상업예술, 문학부터 영화까지 ‘문화향유의 폭넓음(옴니보어 omnivore)’에 목표를 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최소 2년 단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정확한 통계와 시계열적 분석에 의한 정책수립을 위해 2년 단위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함

5) 이와 관련된 개념이 옴니보어(Omnivore)임. 상류층이 클래식부터 오페라, 뮤지컬, 락, 심지어 힙합까지 좋아한다는 것임. 이에 반해 저소득층, 저학력의 경우 좋아하는 장르가 적다는 것임.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잡식경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류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대된다고 함.